

도가리이시 쇼몬 고고관



●도가리이시 쇼몬 고고관

야쓰가타케 산록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을 무대로, 지금부터 약5천년 전에 쇼몬 문화가 번영했습니다. 도가리이시 유적은 그런 야쓰가타케 산록의 쇼몬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도가리이시 쇼몬 고고관은 도가리이시 유적의 출토품 뿐만 아니라 일본 최초의 국보「토우」(쇼몬의 비너스)와 국보「토우」(가면의 여신) 등 야쓰가타케 산록의 쇼몬 유적에서 발굴된 2천여점의 뛰어난 고고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쇼몬 문화의 연구와 체험학습, 또한 가족의 심터로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야사카 후사카즈씨의 도가리이시 유적의 발굴

미야사카 후사카즈씨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고고학 연구를 했습니다.

전전부터 야쓰가타케 산록의 쇼몬 유적을 발굴했고, 특히 도가리이시 유적은 독력으로 발굴을 계속했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쇼몬 취락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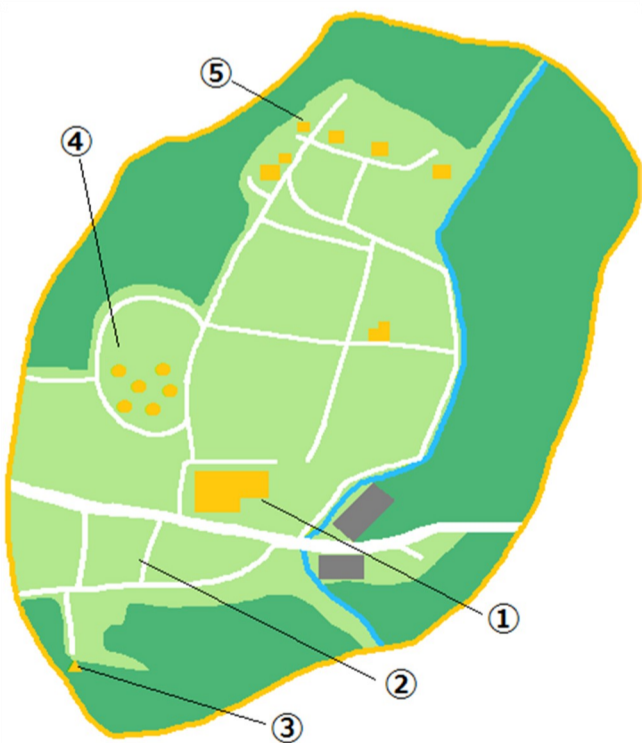
또한 요스케오네 유적에서도 취락을 발굴했습니다.

미야사카 후사카즈씨의 도가리이시와 요스케오네 유적의 발굴은 쇼몬 시대 취락 연구의 원점이 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도가리이시 공원 지도

도가리이시 유적은 고고관을 중심에, 쇼몬 시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가리이시 유적과 풍부한 자연에 풍족한 환경을 활용한 다음 시대를 짊어지는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원체형 시설「청소년 자연의 숲」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①도가리이시 쇼몬 고고관
- ②도가리이시 유적 ③도가리이시
- ④복원 주거 ⑤청소년 자연의 숲

●특별사적 도가리이시 유적

야쓰가타케 산록의 높이 1070미터 대지에 있는 쇼몬 시대 중기 유적입니다. 미야사카 후사카즈씨는 쇼와 5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고, 수많은 움집터 등 같이, 토기와 석기가 발굴됐고 중부 산악 지대 고원지대에 번영한 쇼몬 시대 중기의 문화와 취락이 밝혔습니다.

도가리이시 유적은 학술상 가치가 특히 높고,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쇼와27년 특별사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약수터가 있는 얇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도가리이시 유적의 북쪽에 인접하는 요스케오네 유적도 헤이세이5년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蛇体把手付深鉢

토기 아가리에 입을 연 뱀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릇 면에 쇼몬이 붙여 있는 높이 19.5센치의 후카바치 형 토기입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발굴된 도가리이시 유적을 대표하는 쇼몬 토기입니다.



●국보「토우」(쇼몬의 비너스)

다나바타케 유적 출토

취락의 중앙 광장의 작은 구덩이에서 완벽한 모습 그대로 묻힌 상태로 출토했습니다. 야쓰가타케 산록의 쇼몬 시대 중기 토우의 특징을 잘 표하고 있습니다. 조형적으로도 우수하고, 발굴조사에 따라 출토상태가 분명하다는 점에 의하여, 헤이세이 7년 국보 지정을 받았습니다.

토우는 주된 골격을 점토로 조립하고, 양질의 점토로 실을 붙이고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표면은 잘 닦아 광택을 발하고 운모가 부분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작은 얼굴, 옆에 펼쳐진 팔, 임부를 표현한 복부, 크고 안정감이 있는 허리와 엉덩이,굵은 다리로 잘 서있고, 인간미 넘치는 표정풍부한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요스케오네 유적 복원 주거

요스케오네 유적은 미야사카 후사카즈씨가 쇼와21년부터 27년까지 쇼몬 시대중기 움집터 28개를 발굴한 유적입니다. 같은 시기의 주거 6등에 복원주거를 건설했고, 한시기에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쇼몬 취락의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복원 주거는 호리구치 스테미 공학 학사가 설계한 도면을 바탕으로 건설했습니다.

취락의 남쪽에는 약수터가 있고, 쇼몬 사람에게 물이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원 주거의 주위에는 밤등 열매를 맺는 낙엽활엽수의 숲이 넓어지고, 쇼몬 사람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가리이시

유적의 남쪽 사면에 있는 높이 1미터정도의 삼각뿔상의 큰 돌이고,「도가리이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가리이시 유적의 이름 유래가 되는 큰 돌이고, 쇼몬 사람들이 석기를 깎는 돌이라고도 합니다.



●국보「토우」(가면의 여신)

나카타바라 유적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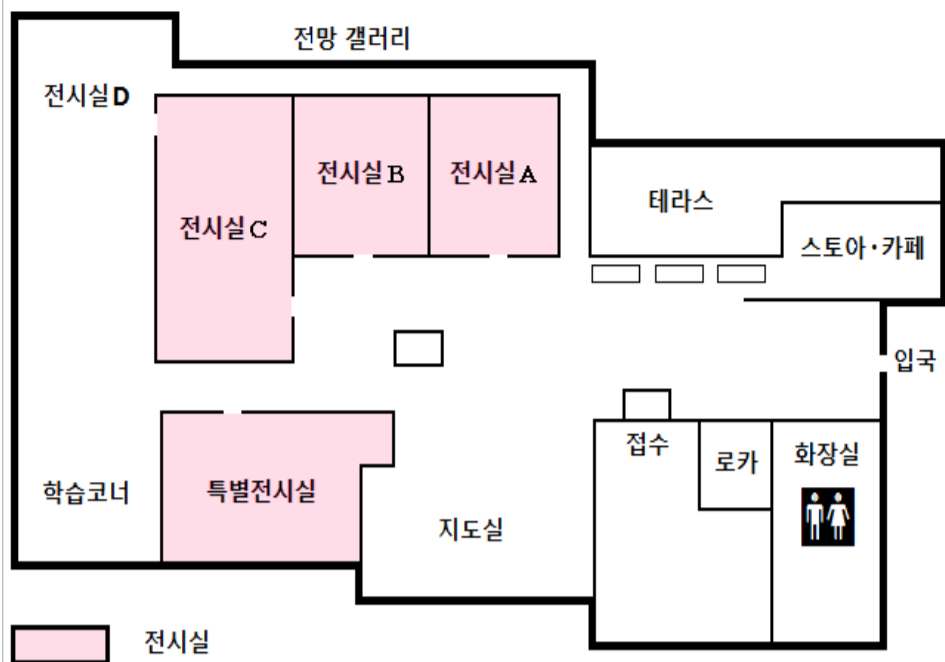
쇼몬 시대 후기의 가면표현을 가지고 있는 토우입니다. 문양은 정중하게 붙이고 있고, 조형적으로도 우수합니다.

또한 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덩이에서 부장된 상태로 출토된 희귀한 토우고, 헤이세이26년 국보 지정을 받았습니다.

토우는 와즈미(고리 쌓기)라고 불리는 제작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공동입니다. 표면은 광택이 나는 정도로 잘 닦았고,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대지에 차분히 서는 굵고 큰 발, 밖으로 내밀은 복부, 역삼각형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큰 특징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관내 안내



【전시실 C 야쓰가타케 산록의 조몬 문화】

지금부터 5천년전부터 4천년전의 호방한 장식이 있는 토기를 중심으로, 야쓰가타케 산록에 번창한 조몬 문화에 대해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실】

조몬 문화를 중심으로,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전시실 D 조몬 시대의 생활】

조몬 시대의 의식주와 계절마다의 생활에 대해, 모형과 영상, 체험 학습을 통해 체감해 줄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지도실】

고고관과 사적공원의 안내, 국보「토우」(조몬의 비너스)에 대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개최하는 공간입니다.

【전시실 A 특별사적 도가리이시 유적】

일본에서 처음으로 조몬 시대의 마을이 발굴된 도가리이시 유적·요스케오네 유적을 발굴한 지도(도시) 명예 시민 미야사카 후사카즈씨의 연구 업적을 소개합니다.

【전시실 B 조몬의 비너스(국보)와 가면의 여신(국보)】

다나바타케 유적에서 발굴됐고, 조몬 시대 유물로 처음으로 국보 지정된 토우(조몬의 비너스), 나카빠라 유적에서 발굴된 국보 토우(가면의 여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두개의 토우에 대해서, 출토 상황 모형과 사진을 쓰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코너】

조몬 토기와 토우 제작이 할 수 있는 체험학습 코너입니다. 고고학에 대해 책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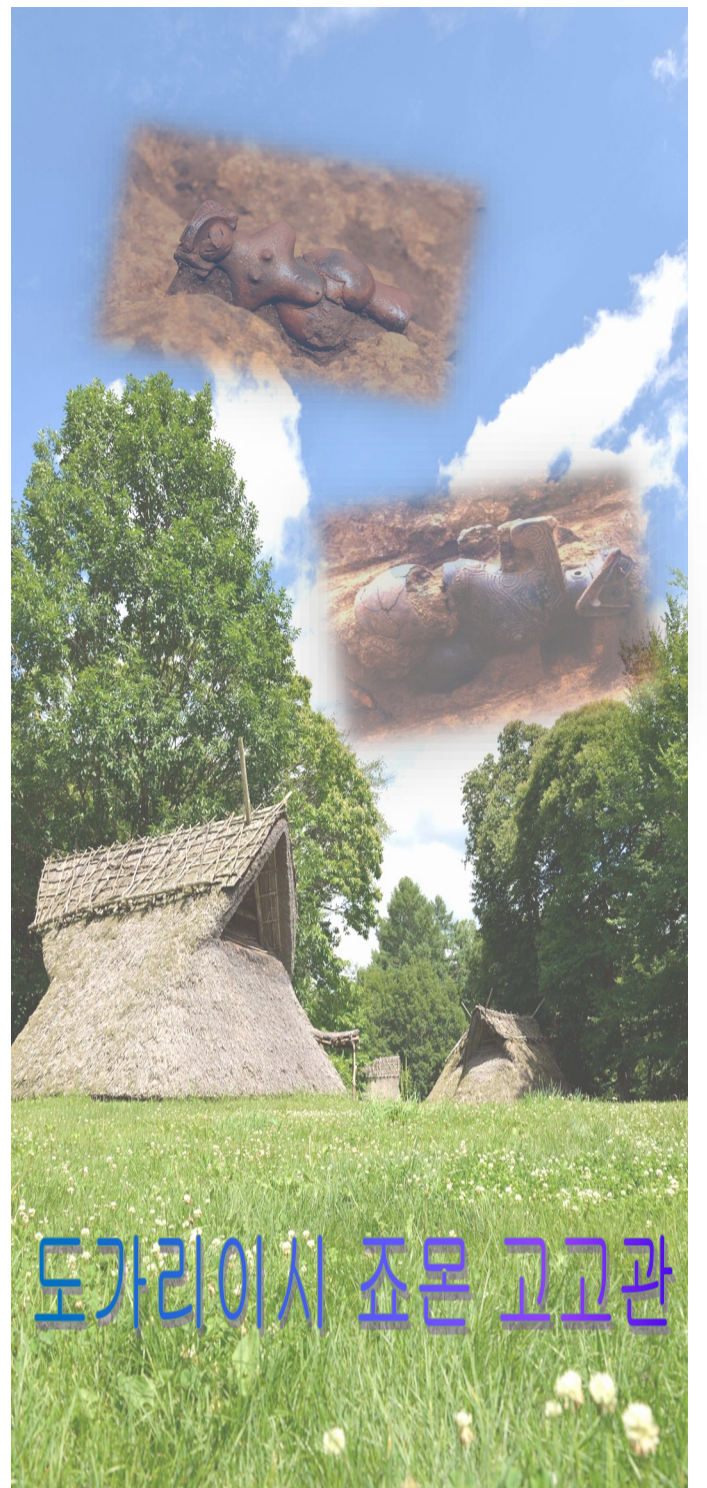
【스토아·카페】

박물관 스토아에서는 책과 국보「토우」(조몬의 비너스), 국보「토우」(가면의 여신)에 대해, 다양한 상품을 살고 있습니다. 인현, 열쇠걸이, 넥타이, 쿠키 같은 과자도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케이크와 도넛 같은 경식과, 커피등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테라스】

복원 주거와 풍부한 경치를 보면서, 경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피곤했을때 한숨 돌린 곳에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가리이시 조몬 고고관

토기와 문화의 변천

국석기 시대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총창기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밤기	
만3천년 전	1만년 전	6천년 전	5천년 전	4천년 전	3천년 전	2천3백만년 전	
【구 석기 시대 (만3천년전 이전)】 야쓰가타케 산록에 있는 쯔메타야마의 흑요석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유적이 남는다.	【총창기 (만3천년전)】 토기 제작이 시작했다. 야쓰가타케 산록에서는 이 시기의 토기를 출토하는 유적은 아직 발굴되지 않는다.	【조기 (1만년전)】 기리가미네 남록에 작은 규모로 취락이 영위된다. 야쓰가타케 산록에서도 움집터 생활이 시작하다. 센테이 토기가 발달하다.	【전기 (6천년전)】 야쓰가타케 산록에 취락이 많아지고, 산록에서 안정화하는 생활이 시작하다. 평평한 바닥(히라조코) 토기가 넓어지고, 조몬과 치쿠칸문이 발달하다.	【중기 (5천년전)】 야쓰가타케 산록에 큰 취락이 발달하고, 조몬 문화가 번영하다.토기는 호화로운 장식과 입체 손잡이로 장식되고 그릇면도 다양화하다.	【후기 (4천년전)】 야쓰가타케 산록에서 유적이 점점 감소하고 문화의 쇠퇴가 시작된다. 토기의 문양은 단순화하고 수리케시 조몬이 발달하다.	【밤기 (3천년전)】 야쓰가타케 산록의 조몬 문화는 쇠퇴하다. 유적은 야쓰가타케 산록의 주변에 근소하게 인정된다. 토기에는 도호쿠와 도카이형의 영향이 인정된다.	【야요이 시대 (2천3백만년전)】 수와 호수 주변의 충적 지역에 취락이 영위하고, 금속기 사영과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정보

관람료 개인

어른 500엔,고등학생300엔,초등·중학생200엔

관람료 단체 (20명이상)

어른400엔,고등학생200엔,초등·중학생150엔

회관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입관은 오후4시반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휴일 경우를 제외합니다)

년말년시 (12/29~1/3)

휴일의 다음일 (이 날이 휴일,토·일요일 경우를 제외합니다)

치노시 도가리이시 조몬 고고관

〒391-0213 나가노형 치노시 도요히라 4734-132

전화 0266-76-2270

팩스 0266-76-2700

홈페이지 <https://city.chino.lg.jp/site/togariishi/>

메일 togariishi.m@city.chino.lg.jp

●조몬 시대의 의류, 식료, 주거

【조몬 사람의 의류】

조몬 시대에는 실을 짜고 만들었던 천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안긴」이라고 불리는 천입니다. 조몬 시대에는 이 천으로 의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불분명한데, 「토우」의 문양은 의복을 표현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몬 사람의 식사】

조몬 시대 사람들은 야쓰가타케의 풍부한 숲이 가져오는 자연의 은혜를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 열매를 채집하면서 일년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식료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콩등을 재배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몬 사람의 주거】

조몬 시대 집은「움집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면에 큰 구덩이를 파고 흙벽과 바닥을 만듭니다.

또한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걸었던 주거입니다. 바닥에는 불을 때기 위한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제단이 만들어진 주거도 있습니다.

